

투어리즘시티를 제안한다

A Proposal for a Tourist City

김석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Kim Suk-Cheol

세계에 한국만큼 아름다운 나라도 드물다.

금강산, 지리산만한 산이 세상에 많지 않고 서해·남해안처럼 바다와 육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도 흔치 않다. 그리고 한국인만큼 잘 노는 민족도 없다. 고대문명때부터 한국은 축제의 나라였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행사는 아름다운 종교축제이고 중요제례악은 유교문명의 정수를 예술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88올림픽의 개폐회식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축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와 팔만대장경과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불상과 불화가 있고 세계가 감동한 고려청자와 이조백자가 있다.

이런 나라가 세계최고의 관광도시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다. 게다가 지금은 외화를 벌어야 하고 우리를 세계에 잘 보여야 할 때다. 세계화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남보다 잘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을 상징할 한국적 캐릭터를 가진 관광도시를 만든다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세계의 자본도 다시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면서 기존도시와 연계되고 관광도시로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을 찾아 그곳에 세계인 모두가 찾는 최고의 투어리즘시티를 만들어 적어도 연간 천만명 이상이 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스베가스 보다 다양하고 디즈니랜드 보다 상상이 크고 브로드웨이 보다 더 많은 문화와의 만남이 있는 투어리즘시티를 만들 수 있으면 세계가 우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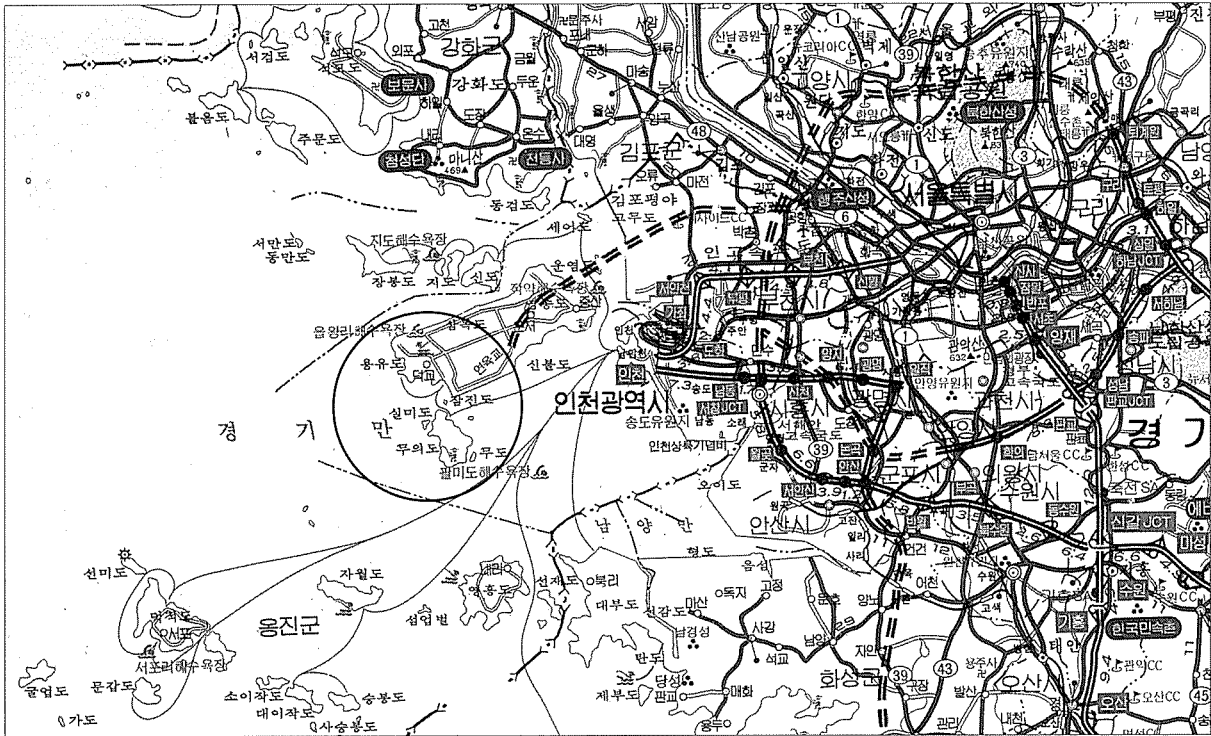
세계로부터 사람이 오려면 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하고 수도권 2천만 인구로부터 직접 접근될 수 있어야 하고 발해만 3억 인구가 바다로부터 올 수 있는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한다. 연간 1억 이용인구의 신 국제공항에서 바로 이어지는 곳 이면서 한국적 아름다움과 동양적 정취가 가득한 곳이 어디일까.

신인천공항옆 용유도와 무의도 사이 갯벌과 바다로 가보자.

아름다운 해안이 바라다보이는 곳이면서 반은 바다에 반은 갯벌에 위치하며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육지에 닿아 있기도 한 바다 위에 인공의 섬을 용유도와 무의도 사이에 세우면 아름다운 해안과 서해바다를 자기 것으로 하면서 자연보존과 인공개발을 함께 하는 생태학적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드는 일은 자연을 가장 크게 파괴하는 일이다. 배는 바다도 육지도 다치지 않는다. 반은 갯벌에 닿고 반은 바다에 잠긴 직경 1.5 Km의 인공섬 한 가운데 바다호수를 만들면 바다가 섬안에 잠기게 될 것이다.

여객선은 먼 바다에 정박하고 작은 배로 환상의 섬에 닿고 공항터미널로부터는 모노레일로 이어진다. 수도권 2천만



인구는 고속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된다. 세 흐름이 접속되는 지점을 체크포인트로 하면 공항과 항구로부터의 모든 외국인인은 자유항인 바다도시에서 비자없이 머물 수 있게 된다.

이런 환상의 섬에 세계최고의 투어리즘시티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상징적 관문도시인 환상의 섬은 어떤 세계여야 할까. 라스베이거스 보다 흥미롭고 디즈니랜드 보다 환상적이고 브로드웨이 보다 볼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컨벤션센터와 카지노, 테마파크와 오페라하우스, 박물관 등이 세계최고의 호텔들과 함께 들어선 한국의 세계적 상징이 될 문화적 환상의 섬을 만들자.

일단계는 연간 천만이 최종 단계에는 연간 3천만이 목표인 세계 최고의 투어리즘시티를 신공항옆 바다와 갯벌사이에 세우는 안을 준비하고 이를 세계에 보여 세계가 투자하고 세계가 오도록 해야 한다.

용유도와 영종도 사이에 연간 1억 승객이 다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 공사중이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울 내부순환고속도로가 함께 공사중이며 한강과 서해바다를 잇는 경인운하가 진행중이다. 이만한 투자가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예가 없었다. 천혜의 자연과 2천만의 풍부한 인구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가 많지 않다. 세계 최고의 투어리즘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가 기본이 되고 해외가 비약을 가능케 하는 배경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육지의 수도권 인구 2천만 바다의 발해권인구 3억과 하늘의 연간 1억 인구는 투어리즘시티를 위한 최고의 배경이 될 것이다.

바다도시인 투어리즘시티는 수도권의 어미니티코어로서 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어미니티코어로 신 국제공항을 통해 세계로 열린 동북아의 관문이 될 것이다.

IMF체제하 한국의 돌파구는 외환확보와 고용창출이다. 그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상당한 기반이 조성된 일하면서 국제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어반스케일의 투어리즘시티는 건설초기부터 완성이후까지 많은 외국자본의 유입과 계속되는 고용창출을 이루어 낼 것이다. 투어리즘시티야말로 산업구조혁신의 선도가 될 수 있는 3차 산업의 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문가들의 깊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사람이 있다. 건축가들은 지난 경제성장기의 한 주역이었으나 경제 파탄의 또 다른 주역이기도 했다. 세운 것을 되찾아야 하고 잃은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세계적인 투어리즘시티를 세우는 일에 건축가들의 집단적 창의력이 필요한 때다. 투어리즘시티는 우리가 한국의 지리와 역사로부터 받은 것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건축가들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외(분협회 촬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계획작품	최근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미실현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등정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을 소개할 만한 신변잡기,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팀
(우편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작품 동안교회	최영집
대담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문화를 위한 새로운 장	장림중
비평 건축가의 꿈과 현실	정인하

9611	작품 신도리코 아산공장본관	/민현식	9711	작품 일건 C&C 시옥	/최관영
	대담 결과로서의 건축테마	/고성룡		대담 건축적 엄밀함과 명료성	/정인하
	비평 벽과 마당의 건축, 그 또다른 시도	/전봉희		비평 피질	/박길룡
9612	작품 SBS탄현제작센터	/김석철	9712	작품 분당전람회 단독주택	/박연심
	대담 근원적 급진론과 건축가	/성인수		대담 깊은 선과 싸퀀스를 가진집	/류진희
	비평 좋은 건물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임석재		비평 박연심건축이 가장자리에서 머무르는 이유	/전진삼
9701	작품 용문청소년수련원	/김영섭	9801	작품 등그라미 유치원	/이종상
	대담 호기심과 은유의 마을	/송인호		대담 육체적 시선의 임상건축학	/조권섭
	비평 건축과 공간기하학	/최 욱		비평 살아있는 건물의 따뜻함	/한만원
9702	작품 대구일리앙스예식장	/이성관	9802	작품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정시춘
	대담 어둠속의 빛, 건축의 새로운 지평	/임창복		대담 도심속 열린교회; 상징성과 역사성의 공존	/유원재
	비평 원통과 상자, 건축의 기하학	/양상현		비평 편안한 도심의 종교 문화공간	/김상경
9703	작품 능인선원종합사회복지관	/황인인	9803	작품 진도향토문화회관	/류연창
	대담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의 문맥으로	/정만영		대담 매스의 분할과 공간간의 상호관입	/신남수
	비평 절충의 미학: 우리에게 내재된 단편성	/민선주		비평 전통적 지역속의 친근한 문화마당	/오세규
9704	작품 영남대 제2사회관	/서보광	9804	작품 씨네플러스	/김낙중
	대담 지역성 + 빛과 그림자	/최무혁		대담 도시속의 표정있는 건물	/박항섭
	비평 반세대의 미학: 무광택, 무변형, 무기교	/김억중		비평 극장같지 않은 극장	/이재훈
9705	작품 원실업 천안공장	/최승원	9805	작품 일산장항822	/송광섭
	대담 직관적 감성과 테크놀러지의 모순엇법적 수사	/우경국		대담 이 시대, 주거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	/손기찬
	비평 비상을 꿈꾸는 "이카루스"	/정진국		비평 시각적 필터로서의 주택	/김문덕
9706	작품 성도교회	/최승규	9806	작품 갈평 피정의 집	/강석원
	대담 일상성을 통한 소통의 메시지	/김병운		대담 기하학적 볼륨의 원결성과 전통성의 현대적 수용	/김형우
	비평 기능미학과 형식미학	/백문기		비평 내성적 건축	/신재익
9707	작품 전주리베라호텔	/김병현	9807	작품 동아방송대학	/변 용
	대담 건축의 합리성과 텍토닉성	/정기용		대담 동시적 접근, 그 통시적 제안	/임석재
	비평 전통적 도시속의 도시집합체	/김봉열		비평 자의성과 보편성의 교점찾기	/이주연
9708	작품 웨스틴조선호텔 H빌라	/유원재	9808	작품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우시용
	대담 길과 집의 만남	/민현식		대담 건축적 경험이 내재된 즐거움	/최윤경
	비평 보는 건축과 보이는 건축	/김현철		비평 우시용의 건축과 한국근대주의	/김성홍
9709	작품 하남시청사	/임장렬	9810	작품 박경리 주택	/류춘수
	대담 관청건물과 건축의 다양성	/김정신	(예정)	대담	/심영섭
	비평 건축가의 합리적 개별해	/이공희		비평	/배형민
9710	작품 행응어린이집	/김인철			
	대담 탈각의 몸짓	/이일훈			
	비평 공간의 엔트로피가 높은 집	/강 혁			